

공유문화 확산 · 신경제 가치 창출 집중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마을 · 온라인 플랫폼 '가치앗이' 운영 · 학습동아리 · 공유실험실 등 지원

전북도가 공유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채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도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와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 청년전북'을 비전으로 공유경제 기반 조성에 노력했다.

지난 2017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2018),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며, 공유경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는 지금까지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마을, ▲온라인 플랫폼, ▲학습동아리 및 공유실험실 등을 지원하며, 공유경제 문화 확산에 나선다.

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공유모델을 발굴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주민의 공유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첫째 선정된 (유)포마농부팜(부안)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개소의 마을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선정된 (유)포마농부팜(부안)은 청년 농업인과 고령농가를 연결하는 농기계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기계 활용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고령농가에는 수월한 농작업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9일 개소하는 풀격사회협동조합(익산)의 워킹소셜러운지 '무슨 이야기'는 1인 기업 업무공간·회의실 등을 공유하고, 문화 마실 및 옥상 팸

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공간 담쟁이(진안), 장수 애핀꽃(장수)도 올해 시범마을로 선정돼 공동육아,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공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인 '가치앗이(www.jshare.kr)'가 문을 열어 운영을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 '가치앗이'는 ▲공유자원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유장터, ▲공유자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공유지도, ▲공유자원 거래소인 공유거점, ▲공유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페이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민 누구나 회원 가입을 통해 공유경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유문화 조성, 공유경제 사업화 모델 발굴 등을 위해 올해 처음 학습동아리와 공유실험실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공유경제에 관심 있는 단체 등 10팀을 선정, 공유경제 학습·포럼·강의 등 공유경제 문화 조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유실험실'은 공유경제 관련 기업·단체 등 5팀을 선정, 공유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해 생활 속 공유경제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 내 유휴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눔과 공유를 통한 신경제 가치를 창출, 공유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꽃게 종자 20만 마리 무상 방류

전북도가 자체 생산한 꽃게 종자 20만 마리를 무상으로 도내 연안에 방류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연안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한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도내 연안에 9일 무상으로 방류한다.

지난 4월 10만 마리, 고창군 동호에 1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갑폭 1cm 이상)는 지난 4월 어미 꽃게 확보 후 관리하면서, 성숙 및 부화 유도로 유생을 부화시키고, 약 1개월 동안 여러 차례 탈피와 변태를 거쳐 건강하게(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완료) 성장한 어린 게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0년 처음 꽃게 방류를 시작한 지난해까지 1,221

만 마리를 도내 연안에 지속 방류하며,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연구소는 이번에 방류하는 꽃게 20만 마리를 비롯해 올해 주꾸미, 바지락, 해삼, 박대 등 5종 1,095만 마리의 바닷고기를 생산해 도내 연안에 무상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원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꽃게는 성장이 빨라 단기간에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이번에 방류하는 꽃게를 시작으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산 종자를 생산하고 무상 방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정' 서흥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486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보다 7.3%, 최저점을 기록했던 2018년 7억2760만톤보다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69개소 점검

전북도가 도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선다.

도는 여름철을 맞아 6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분수, 폭포, 실개천 등으로 조성한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11개 시·군의 69개 시설이다. 도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및 시설물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점검을 통해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질 및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하절기를 맞아 7월 16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17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71개소, 장애인지역사회활동 시설 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3개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172개소이다.

오는 11일까지 시설별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이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 등 재점검이 필요한 취약 시설은 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현장 점검한다.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172개소 안전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하절기 풍수해 및 화재·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재난상황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서흥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486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보다 7.3%, 최저점을 기록했던 2018년 7억2760만톤보다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확대 운영

전국 81개 항로 123척 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가 새롭게 출시된다.

전북도는 '바다로'의 혜택 범위를 확대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바다로'는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연안여객선 이용상품이다.

지난 2015년 12월 첫 출시된 '바다로'는 만 25세 이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절기(6~9월)와 동절기(12~2월)에 판매되는 계절 상품이었다.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에게 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매년 참여 선사 및 선박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혜택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바다로-개인권' 상품은 만 34세 이하 내·외국인에 7,900원에 판매한다.

티켓 소지자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횡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여행이 어려운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시범 도입한 '바다로-가족권'을 본격 판매(1만 2,900원)한다.

기존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2인 동반' 혜택을 '가족 3인 동반'으로 확대했다.

이번 '바다로'에는 총 81개 항로 123척의 선박이 참여한다.

전북도는 전체 항로(군산~개야도, 말도, 어청도, 격포~위도)가 적용 대상이다.

이용 티켓은 인터넷 홈페이지인 '가고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출발지 터미널 또는 매표소에서 승선권으로 교환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승선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국해운조합 전화(02-6006-2266)로 하면 된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바다로 상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숙박·관광·교통시설 등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즐기면서 바다와 섬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중국 미래차 기업 투자유치 박차

새만금개발청, 한중 미래차 포럼서 사업기회 소개 · 투자상담 진행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7일과 8일 코트라(KOTRA)가 주최하는 '한중 미래차 포럼'에 참가해 새만금 모빌리티 클러스터(이동수단 협력지구)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관심 기업들과 1:1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중국 미래차 분야 전문협회인 전기차 백인회(China EV100)와 중국기계전자상품수출입협회(CCCME) 등 중국의 주요 기관과 관련 기업 50여 곳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와 감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현황과 자율주행기반 실증인프라 조성 등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실증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다양한 지원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한,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전기차 충전설비 제조기업 등과 1:1 상담을 통해 대중국 접근성, 종합보세

구역 혜택 등 투자 최적지로서 새만금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래차와 관련한 연구·실증·생산이 가능한 새만금의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기반과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과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혜택에도 큰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최근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새만금에 전가치를 비롯한 신산업 관련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